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8.(월) 11:00,
(지면) 7. 9.(화) 조간

배포 2024. 7. 8.(월) 06:00

해양수산부, 아태지역 국가들과 해양디지털화 협력을 강화한다

- 아태지역 8개국 공무원초청 역량강화 국제 연수회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제6회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을 7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3일간 대전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총 8개국의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해양디지털 기술개발 동향 및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디지털 기술 국제동향 ▲ 참가국가별 해양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 차세대 디지털 해도 표준 ▲ 국제 해양디지털정보 플랫폼 등이 있다.

또한, 한국형 e-내비게이션 운영센터(세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현대중공업 등 주요 연구시설 및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술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해운 효율성 증대,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양디지털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팀 장	김인수 (044-200-6141)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이삼준 (044-200-6142)

참고 1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개 요

- (일자/대상) '24.7.9.(화) ~ 11.(목), 대전(호텔인터시티) / 총 8개국
 -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 (주관)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공동

< 워크숍 추진 배경 >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Nav 및 해양디지털 도입 촉진을 위해 '18년부터 추진 중
- IMO 기술 협력사업(韓 → IMO 10만불 TC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총 5회 개최

□ 주요 내용

- 국가별 해양디지털 기술개발 동향 및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산업현장 소개

< 주요 프로그램 >

일자	구성	비고
7.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식(우리부, IALA, IHO, IMO)• (세션 1) 해양디지털 국제동향(IALA, IHO, IMO)• (세션 2) 해양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세션 3) 해양디지털 기술 현황 및 사례 소개(참가국)	대전, 세종
7.1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견학 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e-Nav 운영센터(세종)• (세션 4) 첨단 해양모빌리티 개발 동향(KRISO, HD 현대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디지털화·친환경 선박·자율운항선박 관련 발표• 폐회식	
7.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견학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MASS 실증센터), 현대중공업(중앙기술원)	울산

참고 2

제5회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사진 자료



해양 디지털 세션 토론 및 기념사진(참가국)



개최기관 및 참가국 전체 기념사진